

창세기(1)

메시지 7

생명수의 강

성경: 창 2:10-14, 출 17:6, 시 72:8, 렘 2:13, 요 4:14, 계 22:1

I. 성경에서 생명수의 강, 신성한 흐름, 유일한 흐름에 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— 시 46:4상, 요 7:37-39, 계 22:1.

- A.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,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해 준다 — 렘 2:13, 시 36:9상, 요 4:14, 7:37-39.
- B. 성경에는 오직 한 흐름, 하나의 신성한 흐름이 있다. 역대로 흐르고 있는 신성한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— 창 2:10-14, 계 22:1.

II. “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,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.” — 창 2:10.

- A. 여기에서 강은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며, 이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란다 — 계 22:1-2.
- B.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한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— 계 22:1, 비교 요 4:10, 7:37.
- C. 숫자 4는 창조물인 사람을 상징한다(겔 1:5). 하나의 강이 네 줄기가 된 것은 강이 근원과 중심이신(숫자 1로 상징되시는)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.

III. 생명수의 강, 곧 신성한 흐름의 씨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뿌려졌고, 성경의 그 이후의 책들에서 성장하며, 요한계시록에서 수확된다 — 시 46:4상, 요 7:37-39, 계 7:17, 22:17하.

- A. 살아 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는데,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— 출 17:6, 요 19:34, 고전 10:4.
 - 1.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, 곧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흘러나오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— 고전 15:45하.
 - a. 부활은 죽음에 넣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것을 가리킨다. 부활은 또한 죽음을 통과한 어떤 것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가리킨다 — 요 11:25, 행 2:24, 계 1:18.

결정-연구 개요

메시지 7 (계속)

- b. 생명수는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다 —
엡 1:19-22, 2:5-6.
 - c.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실 때 부활 안에 있고 부활에 속한 사람이 된다 —
고전 10:4, 고후 1:9, 4:14.
2.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흘러 보내야 한다 — 요 7:37-39.
- a.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때, 생수인 신성한 생명이
우리로부터 흘러나온다 — 출 17:6, 요 7:38.
 - b.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흘러 보낸다면 (이기는 이들을 상징하
는) ‘시냇물’이 될 것이고,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쟁의 날에 앞장서서 싸우시면서
이 시냇물을 마시실 것이다 — 시 110:7.
3.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“너는 지팡이를 들고 ... 저 반석을 향해
물을 내라고 말하여라.”라고 말씀하셨다.
- a. “지팡이를 들고”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며, 그리스도의 죽음
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.
 - b. “저 반석을 향해 ... 말하여라”는 매 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이
며, 그 영께서 이미 주어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생명의 영을 주시도록 그리스
도께 요청하는 것이다 — 요 4:10.
- B.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좋은 땅은 “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
원천이 있는 땅”이다 — 신 8:7.
1. 원천은 근원이고, 샘은 원천이 흘러나온 것이며, 시내 혹은 강은 흐름이다.
 2. 좋은 땅에서 물은 ‘골짜기와 산’에서 흐른다 — 신 8:7하.
 - a. ‘골짜기와 산에서 흐르는 것’은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흐르
신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b. 골짜기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,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이고, 산은 그리
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다 — 고후 1:9, 4:11, 14.
- C. 시편 72편 8절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‘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실
것’임을 계시한다.

창세기(1)

메시지 7 (계속)

1. 주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강으로서 흐르심으로써 땅 끝까지 확장될 것이다. 그분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땅 끝까지 강으로서 흘러가실 것이다. 흐름이 있는 곳에 그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— 계 11:15, 율 3:18.
 2.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갈 강에 의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(겔 47:1-12, 율 3:18). 이 강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온 것처럼 네 방향으로 갈라져 온 땅에 이를 것이다.
- D.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 자신이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,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— 렘 2:13.
1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수의 원천, 곧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— 롬 11:36.
 2.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, 곧 그분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마음의 갈망이자 큰 기쁨이다 — 엡 1:5, 9, 22-23.
 - a.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하며,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, 곧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다 — 요 3:29상, 4:14, 계 19:7-8.
 - b.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. 우리가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확장과 충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— 요 4:14, 3:29상, 30상, 고전 12:12-13.
 - c.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거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.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 — 계 22:1, 17.
- E.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물이 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본다.
1. 여기에서 물은, 하나님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영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이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— 요 4:14, 계 22:1, 17.
 2. 물이 깊어질수록,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, 우리 자신의 방향을 내려 놓으며, 흐름이 우리를 실어 가도록 허락하게 된다 — 겔 47:3-5.
- F. 요한복음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묘사해 준다 — 요 4:14.

결정-연구 개요

메시지 7 (계속)

1.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세 단계로 흐르신다. 아버지는 원천이시고, 아들은 샘이시며, 그 영은 강이다.
 2. 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‘영원한 생명에 이르신다’. ‘...에 이르다’는 말은 목적지를 언급하는 것인데, 이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다 — 계 22:1.
 3.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흐르심으로, 새 예루살렘에 이르고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 — 계 21:10-11, 22:1.
 4.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은 모두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목표로 취하신다.
- G.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“생명수의 강”에 대해 말한다.
1.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와 시편 46편 4절 상반절과 에스겔서 47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강들로 예표된 이 강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의 풍성을 의미한다.
 - a. 이 강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의 강이 갈라져 네 지류가 되었던 듯이, 거룩한 성의 사방으로 흐른다.
 - b.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가리키는 것처럼, 풍성을 지닌 이 하나의 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여러 방면을 체험할 때에 많은 강이 된다 — 롬 8:2, 15:30, 살전 1:6, 살후 2:13, 갈 5:22-23.
 - c.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 보내시어,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.
 - d. 이 생명수는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고, 창에 찢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다 — 출 17:6, 요 19:34.
 - e.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 생명수는 강이 되며,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전체를 공급하고 적신다. 이처럼 이 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,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— 계 21:23.

창세기(1)

메시지 7 (계속)

2. 생명수의 강은 ‘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’ — 계 22:1.
 - a.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린양-하나님,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,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.
 - b. 이것은 어떻게 삼일 하나님, 곧 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그 영계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(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)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가를 묘사한다.